

KC NEWSLETTER Vol. 46

우리의 힘,
20MW 세계최대 태양광발전소



KC코트렐

세계최대, 국내 최초

부산신호 태양광발전소 준공

KC코트렐이 시공한 '부산신호 태양광발전소'의 준공식이 13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이태영 사장을 비롯 KC코트렐, 산업통상부, 부산시, 한국동서발전,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유희부지인 완성차 대기장(160,000㎡), 제2주차장(80,000㎡), 공장지붕(50,000㎡), 고객주차장

(10,000㎡)를 활용하여 30만㎡의 부지에 세워진 부산신호태양광발전소는 20MW 국내 최초이자 세계최대(건축물 활용) 태양광 발전소이다.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 부산신호태양광발전소는 지붕 무타공 공법을 적용하여 방수문

제를 해결하였으며, long-span에 적합한 최적의 설계 등 공사현장에 특화된 공법을 사용하였다. KC코트렐, 한국동서발전, KB자산운영 등이 560억을 투자해 건설한 이 태양광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진행 사례로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부산신호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 2만5000 MWh의 전기는 한국전력을 8,300세대 규모의 명지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1만600여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소나무 38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부

산의 풍부한 일사량과 무한 청정 자연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부산신호 태양광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앞으로 KC솔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서 이태영 사장은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부산신호태양광 발전의 성공적인 시공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도 격려사를 통해 KC코트렐의 성공적인 시공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 그 동안 부산신호태양광 발전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한 KC솔라에너지 임직원 및 KC코트렐 임직원의 사진촬영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태영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한 획을 그은 KC솔라에너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ENVEX2013를 빛낸 KC코트렐



KC코트렐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3)에 바이오매스 플랜트, 태양광발전 품목으로 참가하여 환경 전문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알렸다. 올해 35번째로 열리는 전시회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최대 규모, 최장 기간 환경전문전시회이다. 환경산업기술과 그린에너지 분야로 나누어진 올해 행사는 780부스, 300업체가 참가하여 매년 그 명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KC코트렐은 친환경에너지관 설치된 부스에서 관람객들에게 환경기업의 위상을 알렸다. 금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환경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환경사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었다.



KC글라스 황매산 등산



KC글라스의 산악회에서 지난 1월 하얀 눈꽃이 만개한 태백산 등반 소식을 전해 드린 지 벌써 3개월이 지나, 다시 한번 5월의 분홍빛으로 가득한 철쭉의 향을 전해드립니다.

KC글라스 산악회 등반은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월 11일(토)에 황매산 철쭉제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합천군과 산청군에 걸쳐있는 황매산(1,108m)은 소백산, 바래봉과 함께 철쭉 3대 명산으로, 능선의 정상을 휘돌아 산 아래 황매평전 목장지대로 이어지는 전국최대 규모의 철쭉군락지로 유명하며, 특히 황매산 철쭉제는 CNN 선정 한국에서 가봐야 할 명소 50선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명품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철쭉군락지가 있는 해발 800m까지 자동차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나 자녀를 동반한 가족산행코스로도 제격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산행시에는 철쭉이 70%정도만 개화하여 분홍 립스틱으로 그린듯한 황매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완전히 느끼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동료 직원들과의 봄나들이로 쌓였던 피로를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었던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하계 산행의 초록의 기운을 전해드릴 것을 기약드리며, 이상 KC 산악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C글라스 춘계 장고항 선상 낚시

포구가 자리한 바닷가의 지형이 장고를 닮았다 해서 장고항이라 불리는 당진의 석문면으로 5월18일 KC 글라스 춘계 바다낚시를 다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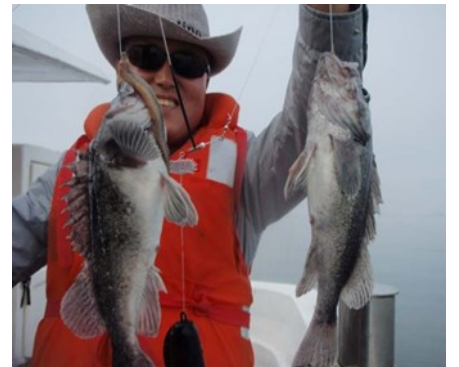
KC글라스의 김정완사장님과 임직원 17명이 함께한 이번 선상낚시모임에 KC 그린홀딩스 고재영 사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춘계 출조지인 장고항은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고, 수도권 인근에서 선상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낚시 마니아 사이에선 유명한 곳이며, 특히 대호방조제를 오른쪽에 두고 있어 물결이 잔잔해 우럭, 놀래미, 광어 등이 많이 잡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출조는 초보자들이 많아 조황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행히 조황이 꾸준하여 모두들 부족함 없이 싱싱한 회와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박 탑승 인원이 제한되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참석하신 분들 모두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단결력을 다지는 훈훈한 춘계낚시모임이였습니다.

다음 선상낚시모임에는 KC글라스뿐만 아니라 KC계열사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위치정보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냉연동향] 7월적 일본 열연가격 인하 가능성 UP

-국내 냉연사 엔저 이유로 인하의지 관철할 듯

2013-06-01 스틸데일리

■ 제조사 동향

1. 판매 및 가격동향

냉연사들이 내수판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가격을 둘러싼 고객사와 공급사의 눈치보기가 치열하다. 당초 냉연사들이 예상했던 가격인상 시도가 쉽지않은 않을 전망이다.

2. 수입동향

일본 고로사들과는 7월적 열연가격 협상이 진행중이며 난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 고로사들이 FOB기준 톤당 580~600달러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냉연사들이 엔저를 이유로 500달러대 초반 오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않은 않을 전망이다. 중국산 열연가격은 510달러대 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제시됐다. 6월적 중국산 열연 가격은 520~540달러 수준이다.

3. 수출동향

냉연 수출가격이 10~20달러 하락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7월적 냉연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열연 수입가격 하락과 더불어 냉연 수출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7월적 수출 오퍼가격은 FOB 기준 냉연강판(CR) 톤당 690달러 수준, 용융아연도금강판(GI)735~755달러, 전기아연도금강판은 780~800달러, 컬러강판은 910~94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월대비 약 10~20달러 수준 하락한 것이다. 최근 중국산 수출 오퍼가격은 냉연강판 톤당 610달러 (이하 FOB 기준), GI 톤당 670달러, 컬러강판 톤당 840달러 수준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국내산 대비 톤당 100달러 정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 유통동향

5월 5주 냉연도금재 유통가격

단위: Kg/원, 현금가, 가공비 미포함, 상차도 기준

품목	규격	포스코제품		냉연3사	
		공장도	판매점	공장도	판매점
CR	1.2mm	1180	930	1180	910
PO	4.5mm	1110	880	1110	840
GI	1.2mm	1280	950	1280	920
EGI	1.0mm	1290	960	1290	940
HGI	2.3mm	1230	910	1230	880

1. 유통가격 동향

포스코산 냉연강판(CR) 1차 유통가격은 현금기준, 가공비 미포함, 상차도 기준 kg당 930~950원, 용융아연도금강판(GI) 유통가격은 950~960원 수준이다.

전기아연도금강판(EGI) 유통가격은 950~960원, 산세강판(PO) 유통가격은 880~9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유통가격은 900~920원, HGI는 포스코 등 제조사들의 할인 축소로 2월 880원 수준에서 920원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다.

냉연3사 제품은 GI가 kg당 920~930원, EGI가 940~950원 등으로 포스코산 대비 30~40원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2. 유통재고

유통업체들의 재고 줄이기가 한창이다. 냉연SSC들이 철강사로부터 주문량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 유통업체들은 하급받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 금주 이슈와 전망

지난주와 다름없이 냉연유통시장의 시황악화가 진행되면서 월 마감 이후 60일 이후에 결제하는 수요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금경색에 짓눌린 냉연유통시장은 설상가상으로 차강판을 제외한 건자재 및 일반 유통 판매가 수 개월간 최악의 상태를 보이면서 매출이 일어날 기미마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열연동향] 가격 보합·하락압력은 여전

2013-06-01 스틸데일리




금주 시중 열연가격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중국산은 톤당 68만원(수도권 시트 어음도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산은 포스코산 수입 대응재가 톤당 73만원 전후, 현대제철산은 73만원~74만원에서 시세가 형성 중이다. 동부제철산은 시중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다. 중국산 열연코일 오퍼가격은 톤당 520달러대에서 제시되고 있다. 베이타이강철이 톤당 525달러를 제시한 것. 전주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지만 하락압력은 여전히 거세다. 중국산 열연코일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다. 철광석 가격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산도 추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처럼 일시적으로 400달러대 후반까지 하락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중국산 가격 하락과 함께 국산도 하락압력이 거세다. 여기에 일본의 엔저까지 겹쳐 유통, 실수요 모두 하락압력을 받고 있다. 냉연사들은 일본 공급사에 인하압력을 가하고 있다. 500달러대 초반까지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공급사들은 500달러대 후반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소비시장 위축으로 열연 시장은 여전히 하락 압력이 거세다. 또한 저가 수출보다 내수 판매 강화로 주요업체들이 전략을 수정하면서 실수요향을 중심으로 하락 압력이 불고 있다. 업계에서는 6월에도 추가로



가격이 하락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큰 폭의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원료가격도 조만간 바닥에 도달 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국내 생산업체들의 가격 경쟁도 원가 문제로 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소비 부진에 대한 생산업체들의 부담은 비수기를 앞두면서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전망] 전 세계 STS 가격 '하락' 예상-MEPS

- 올해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STS가격 하락

- 내년 초 가격 회복할 것

2013-05-31 스틸데일리

올해 전 세계 스테인리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1분기 스테인리스 304 열연과 냉연 각각 톤당 80달러 이상씩 하락했다. 이는 스테인리스의 주요 원자재인 니켈 가격의 하락과 전 세계 수요부진 때문이라고 MEPS는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당분간 수요부진이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이 쉽게 회복하지 못해 6월에도 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가들 역시 니켈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매입보다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EPS는 전반적인 시장상황은 좋지 않지만 향후 1년은 가격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매년 3분기에는 여름휴가시즌 이후 새로운 소비활동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급감을 줄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MEPS는 내년 초부터 스테인리스 가격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위낙 바닥을 형성했고 겨울시즌 후에 대리점들이 리스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은 가진 자의 몫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 박경철 테마

대학원생이 되어 조교를 맡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학부 때는 교수가 무척 한가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무지하게 바쁘다는 것이다. 교수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 대개 그렇다. 다들 바쁘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겹언쩍지만, 난 그 중에서도 더 바쁜 축에 속할 것 같다. 강의도 늘 많이 하고, 보직도 여러 가지 맡고 있다. 여기저기 시민단체와 연구모임, 학회에 참석하고, 프로젝트나 특강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방학에도 항상 출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대개는 연구실에 나온다.

건강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안부를 물을 때마다 나는 버릇처럼 대답했다.

"네, 그렇긴 한데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활이 그렇다고 생각했다.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은 할 시간이 없다고, 적어도 박경철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을 때까지는 그랬다.

외과의사이면서 '시골의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경제평론가 박경철 씨는 대단한 분이다. 그의 한마디에 수십만 명이 주식을 매매하고 통장을 바꾼다. 그런 만큼 그는 참 바쁜 사람이다. 매일 아침 2시간씩 라디오 방송, 주1회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인이고, 신문과 잡지에 고정칼럼만 15개를 쓰는 칼럼니스트다. 전국을 누비며 해야 하는 강연이 월 평균 30건이고, 토요일엔 반드시 안동의 병원에 내려가 본업인 진료를 한다. 친구와의 오랜 약속 때문이란다. 더구나 그는 매년 1~2권의 책을 펴내는데, 그냥 가벼운 책이 아니라 항상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깊이 있는 저서들이다.

비결이 뭘까? 한 사람이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 수준의 1인인 4~5억을 소화한다.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분석이 필요한 독서와 사색의 시간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느 잡지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2000년 0시를 기해 전 다섯 가지를 끊었습니다. 술, 담배, 골프, 유혹, 도박입니다. 이중 금연이 마지막까지 잘 안되더군요. 그래도 술 안 먹고 골프 안 하고 딴 마음 안 먹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TV는 원해 안 보았고요. 그 시간에 책보고 글 쓰고 하는 거죠. 책은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어요. 화장실, 이동하는 차 안 토막시간마다 책을 펼치죠. 매년 10월에 책 한 권씩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매일 200자 원고지 20~30장 분량의 글을 써서 저장해둡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1인 다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시간 없다'입니다"





나는 특히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시간 없다' 입니다."

우리는 왜 시간이 없을까? 박경철씨 말대로 술 마시고, 골프치고 (그대들의 경우에는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저런 유혹과 일시적인 이득에 관심을 가지느라 누군가는 저토록 알차게 사용하는 황금같은 시간을 다 날려 버리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나는 그랬다. 내가 시간이 없는 이유의 태반이 그런 것이었다. 인정한다 허투루 흘려 보내고, 그냥 때우는 시간이 수두룩한데도 '요새 너무 바쁘다' 고 엄살을 떨어왔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는 어떤가? 혹시 '시간 없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공한 사람의 하루는 25시간. 실패한 사람의 하루는 23시간'이라고 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별 게 아니다. 결국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의 문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을 적어보자 한다. 물론 앞서 말했듯 나도 시간관리를 아주 잘하지 는 못한다. 그래도 스스로 시간을 통제해야 하는 교수라는 직업을 10년넘게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몇 가지 있어 그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 드릴까 한다.

1. 시간관리란 목표의 함수다

흔히 시간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치밀한 계획표를 짜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계획표를 짤 것인가, 즉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관리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최악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플 때는 꼭 쉬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일단 건강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영어공부 몇 시간, 운동 몇 시간 하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구성하는 '계획을 위한 계획'은 의미도 없을뿐더러 중간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시간관리를 할 때 우선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대한 결정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는 식의 우유부단함은 삶의 방만을 부른다. 시간관리란 무엇인가를 용기 있게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포기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 할 일을 결의하기에 앞서, 포기할 것을 먼저 정해라.

결가지가 많으면 큰 나무가 되지 못한다. 시간관리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저기 곁으로 쓰는 시간이 많으면 큰 꿈을 이룰 수 없다. 봄이면 정원사들이 거침없이 가지치기를 해주듯, 우리도 시간도 냉정한 구조조정을 해줘야 한다.

2. 의미 없는 습관으로 굳어진 취미는 청산하라

시간관리란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는 일이며,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할까? 의미 없는 습관으로 굳어진 취미, 말이 좋아 취미지 실은 '시간 때우는 작업'으로 변질된 것부터 청산해야 한다.

알게 모르게 시간을 훔쳐 가는 시간 도둑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도둑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시간 공간을 튼실하게 채우기는 불가능하다.

내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버릇이 들어 하게 되는 행동, 다른 대안이 없어 하게 되는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행동이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 행동, 즉 버릇이 들어 하게 되는 중독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하다. 가장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온갖 이유를 들어 자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가장 고치기 어렵다. 하지만 내게 없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기존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특히 시간을 사용하는 중독된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에는 대부분의 남학생이 당구에 빠져 있었다.

당시 대학가에는 한 집 걸러 당구장, 두 집 걸러 술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나도 당구장으로 등교했다가 수업시간이 다 돼서야 허둥지둥 교실로 향한 적이 많았다.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큐를 잡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만둘 수 없어서 치게 된다. 당구가 나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재미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예외가 없는 것일까? 처음에는 좋아서 했던 일들이 차츰 의미 없는 습관으로 변질된다. 그런데도 몸에 익어버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중독돼서 끊지 못하는 것이다. 그때 참 적지 않은 액수의 용돈을 당구장에 갖다 바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도 돈이지만,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 버릇으로 굳어져 끊지 못해 들렀던 당구장, 막상 큰 즐거움도 주지 못하고 내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던, 그저 버려진 시간들...

요즘 학생들에게는 웹 서핑이나 게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줄이고, 끊어. 특히 게임

은 반드시 끊어라, 훗날 돌이켜봤을 때 청춘의 시간을 허비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의미 없는 습관으로 굳어진 취미를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란 식의 변명으로 감싸지는 말라.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성장하는 즐거움이다. 성장에 꼭 필요한 양분인 '시간'을 빼앗는 일이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 그냥 때우는 시간이 많아 질수록 존재의 두께는 얇아진다. 무의미한 반복이 계속되는 취미, 혹은 시간 때우기를 당장 그만둬라. 다음은 내가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 행동, 되도록 하려는 행동을 정리한 리스트의 일부다, 그대들에게 참고가 될까 하여, 실어보았다.

게임보다는 독서를, 인터넷 서핑보다는 신문 읽기를 T V 시청보다는 영화 감상을, 공상보다는 사색을, 수다보다는 대화를, 골프보다는 빨리 혹은 느리게 걷기를, 다이어트보다는 운동을, 사우나보다는 반신욕을, 늦잠보다는 피로를 푸는 토막 잠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술을 택한다.

3. 15분은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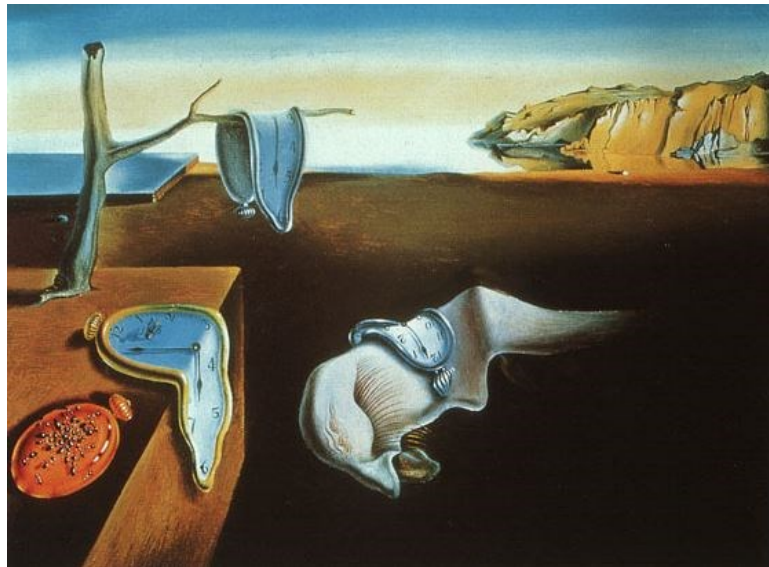
조금 애매한 시간들이 있다. 한 15분 정도 남은 시간 뭔가 새로 하기는 귀찮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는 조금 지루한 시간,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 수업 시작 전 잠깐의 여백. 그대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아무 스케줄 없는 여백이 몇 시간씩 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바쁘다. 끊임없이 약속이 생기고 어딘가로 이동해야 한다. 뭉텅이 시간이 라곤 없이 조각조각 토막 난 자투리 시간만 남게 되는 것은 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의 보편적 특징이다. 이런 사회에서 결국 시간관리란 곧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동의어다. 충분한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틈틈이 나는 작은 시간을 그러모아야 한다.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하겠다고 마음먹고 세운 것은 '15분 내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바로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이따가 해야지, 하고 생각한 것치고 이따가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다. 지금 하기 싫은 일은 나중에도 하기 싫기 때문이다. 차라리 지금 끝내고 잊어버리는 편이 스트레스가 적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도 단점이 있다. 매사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일보다 귀찮은 일을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뭘 하기 애매한 자투리 시간에 주로 한다. 테트리스 조각을 맞추듯 빈틈을 자꾸 없애다 보면 몰입할 수 있는 한 덩어리의 시간이 제법 생긴다.

그러니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토막 내기 쉽고 반복적인 것이 좋다. 내 경우에 애매한 시간에는 주로 잠을 청하거나 신문을 읽는다, 잠자는 게 나는 제일 좋다. 일단 눈을 감고 선잠이라도 자려 노력하고, 정 잠이 오지 않으면 신문을 읽는다. 그대에게 '15분 이상 시간이 나면 영어단어라도 외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는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 보내면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라는 것이다.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자신과 대면하는 일은 자신의 역량을 어떤 방향으로 길러나가야 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중요하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그러고는 다들 쇼핑하듯이 유행하는 스펙을 쌓느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주워 담는다. 그래서 항상 바쁘게 열심히 생활하고 스펙도 제법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경쟁자들과 별로 차별화되지 못한다. 철저한 자기와의 대면이 없으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의식도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인식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꼭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깊은 사색에 빠져야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찜질방 사우나에 들어가 얼마나 버텼었는가? 15분은 무지하게 긴 시간이다. 1~2시간 이상 긴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자투리 시간을 잘 써라.

4. 바빠야 시간이 난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반드시 할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정작 여유가 생겼을 때, 계획하던 그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는가?

나만 해도 그렇다. 고등학교 때 대입준비로 한창 바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다. 대학만 가

면 책도 많이 읽고, 피아노도 다시 시작하고, 사진도 찍고, 어쩌고 저쩌고, 다이어리에 정말 빼곡히 할 일을 적었다. 하지만 정작 해학에 입학하고 나서, 혹은 아무일이었던 고3 마지막 겨울방학조차도, 제대로 한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은 선생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전방학에는 미루었던 번역작업을 꼭 해야지," 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내 개강이다. 그대는 어떨까? 나만 그런가?

가만히 보면 그대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휴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을 만나 얼마나 보람 있게 보냈느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대답이 같다. "그냥 후딱 시간이 가버리던데요? 별일도 못했어요". 비단 휴학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 분명 한가한 기간인데,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많은 사람에게 반복되는지 생각해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바빠야 오히려 시간이 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렇다 바빠야 하고 싶은 일의 소중함이 비로소 절실해진다.'

더욱 중요한 점은 바빠야 생활이 치열해져 시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시간이란'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가할수록 쓸 수 있는 시간은 더 생길지 몰라도 치밀한 시간관리의 의지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한가한 시간'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다. 한가하다는 것은 급하게 혹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하지만'백수가 과로사하는' 세상이다. 여기저기 시간도둑을 잡지 못하면 시간은 많았는데 한일은 없는 황당한 경우가 계속 반복된다.

바쁠 때가 오히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좋을 때다. 나중에 한가해 지면 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유보의 구실이다. 가장 바쁠 때 시간을 쪼개 '그 일'을 시작하라. 그렇다. 바로 지금 말이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하지 못한다.

인간의 삶에서 시간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시간은 우리 영혼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다. 시간이 전부다. 그대의 내일은 오롯이 오늘의24시간에 달려 있으므로 그대의 시간은, 어쩌면 그대보다 소중하다.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